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교만한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떠오르는 잡념은 풀보다 많다.
계율의 덕은 땅보다 무겁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 1086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근대 문화재 발굴·연구 항일 인사 조명 첫 걸음

올해로 3.1운동은 97주년을 맞는다. 3년 후에는 100년을 앞두고 있지만, 불교계 항일 운동가 발굴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경희·만공선암회가 구성돼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만당 결사를 결성·활동한 우봉 스님의 자손도 서훈을 위해 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스님들의 항일 활동과 유적들이 있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것은 근대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적으로 인지도 낮은 불교계의 항일 운동 인사는 3.1 독립선언 당시 민족대표로 참석한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 진관사에 비장했던 태극기가 발굴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백초월 스님 정도다.

근대문화재 등록도 3명의 스님에 집중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00여 건. 이중 불교 관련 근대문화재는 30건이다. 이중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열악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선문류' (458호), 구리 한용운 묘소(51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629호), 백용성 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630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632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학록(637호),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646호) 등 8건이다. 이는 전체 등록 근대문화재의 2%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근대 문화재 발굴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백초월 스님은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이미지 메이킹되면



은평구 보건소에 계양된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 은평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주요 도로에 진관사 태극기 1300여 기를 계양했다.

- 용성 스님 조선어 화엄경 등
- 서울시 문화재 등록 추진돼
- 진관사 백초월 스님 태극기
- 3.1절 은평구 곳곳서 계양
- 유산 발굴·활용 모범 사례
- 근대문화재 내 항일 유산은
- 전체 2% 수준... 발굴 절실
- "문중·교단적 관심 필요해"

서 대중들의 주목받고 있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통일로를 비롯해 은평로, 수색로, 연서로, 서오릉로 등 5개 도로에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 1360여 기를 계양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동국대 도서관이 소장한 백용성 스님 〈조선글화엄경〉(조선어능엄경)을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강

점기에 민족 독립의식의 고취와 불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지정하는 유·무형 문화재가 상당하지만 백용성 스님의 〈조선어 능엄경〉과 같은 근대 문화유산이 발굴·등록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면서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인력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많다. 불교 문중이나 교단 차원에서 문화재를 조사·발굴해서 제안을 준다면 검토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근대 문화재 발굴을 위해 법고단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대 고승과 관련한 기록 자료는 각 문중별로 전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연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민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 팀장은 논문 '근대 불교문화유산 발굴 및 정리방향(전자불전 16집)'에서 "근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범법학적 차원의 관심과 정밀학술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종파, 사찰, 스님들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불교계 항일 인사 발굴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근대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관리 책임과 함께 여러 이점이 있다는 것을 불교계가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중장기적인 사업이다. 종단 문화부와 문화재 기관 등이 조사·연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외국인 불자들이 봉사 전진기지 탄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자들의 봉사·수행 전문 단체가 결성됐다. 흥법사(주지 심산)는 2월 23일 외국인 불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자비실천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미국, 영국, 인도, 태베트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불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자비실천봉사단은 앞으로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가르침 아래서 수행하며 외국인 법회를 진행해 국제포교 및 봉사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화 가속화

대중공사 상반기 중점의제...자승 스님 "변화 필요" 피력

2017년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조계종이 종단 대소사에 대한 대중공의를 수렴하기 위해 만든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2월 24일 서울 인사동 지리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중점의제로 삼아 대중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중공사추진위는 3월 31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2016년 출범식을 갖고 1차 대중공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대중공사에서는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 △엄화미소법 △종단 혁신특위 개선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검토하게 된다.

이어 4월에서 5월 사이 지역별로 대중공사를 통해 입장을 모으고 5월 18일 전체 대중공사에서 논의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중공사는 교구본사를

기본으로 지역별교회관 등 지역거점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 전체 대중공사에서의 채택안은 중앙총회 총무원장선거제도 혁신특위에 제출되며 6월 경 열리는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대중공사추진위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1994년 종

3월 31일 중앙·지역서 대중공사
교구본사추진협도 제도개선 회의
중회혁신특위 6월 개선안 발의

단개혁을 통해 도입된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참종권 확대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아 제도보완이 지속 요청됐던 상황"이라며 "추천제인 엄화미소법을 비롯해 직선제 등 제도 혁신에 대한 다양한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현 총무원장의 선출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례적이다.

자승 스님은 특히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가 좋은 방안이지만 우리의 의식이 발전하지 못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더 크다"면서 "추천이든 뭐든 차선책으로라도 현시점에서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특위는 당초 엄화미소법을 3월 임시총회에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상태다. 총무원장선출제도특위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교구본사추진회의 등의 안건을 수렴해 6월 임시총회에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교구본사추진회의도 6월까지 최소 2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올해 봉축 표어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4월 20일 점등식 시작... 5월 7~8일 연등회 개최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월 24일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과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0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의 점등식부터 시작된다. 5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청계천과

봉은사, 조계사 일대에서 전통등전시회가 열려 봉축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이어 5월 7일 오후 4시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 오후 7시 제등행렬, 오후 10시 종각일대에서 화려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5월 8일 낮 12시부터는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외국인 등만들기대회 등이 펼쳐지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연등놀이가 진행된다. 봉축 범의식은 5월 14일 오전 10시 전국사찰서 일제히 봉행된다.

봉축위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며 "특히 불안한 국내외 정치상황과 날로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성장과 무연대비(無緣大悲) 자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표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86호 INDEX

시방세계

전국 사찰·복지관
대보름 행사 '다재'

5



산문 밖의禪

육명심 사진가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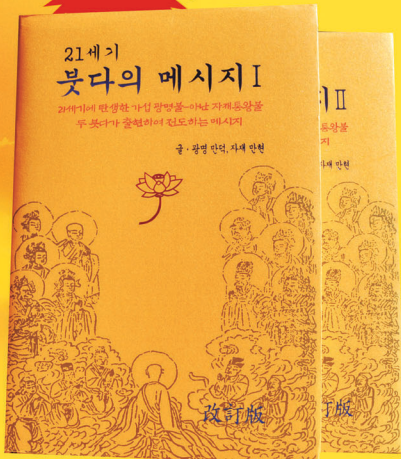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보정판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나는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교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 사후 윤회세계와 애탈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각과 정령!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은계가 윤회주체임을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가 중중무진연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